



산중일기-17세기 선비의 우리 사찰 순례기 정시한(丁時翰) 지음 신대현 번역 해안 펴냄 | 2만8천원

선비따라 300년전 우리 사찰로



정시한이 3백여년전 둘러보며 소홀한 경관과 관리때문에 아쉬워했던 해인사 판전의 현재 모습.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금은 습도조절을 물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잘 관리되고 있다.

“서문은 돌을 무지개처럼 쌓아올렸으며, 그 가운데에 커다란 석불상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히 모셔져 있다. 좌대석도 바르고 고르게 돼 있어 그 기이한 기교가 돋보인다. 굴 위에는 푸른돌과 여러 돌들이 올려져 있는데 바르고 깔끔하게 돼 있어 기울어지거나 흠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불상들이 살아있는 듯 열지어 서 있다. 참으로 기괴하여 그 모습을 말로 다할 수 없다.”

1688년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선비가 경주 석굴암을 둘러보고 느낀 감회다. 석굴암에 대한 그의 기록은 당시 석굴암의 형태와 보존상태에 대한 유일하고도 자세한 기록으로 현재 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그는 ‘석굴암에서 15리 떨어진 골굴암에는 굴 앞에 처마와 장이 달린 간략한 목조가옥이 세워져 있었지만, 석굴암에는 논안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목조 전실은 없었고 석굴 아래 따로 석굴암이란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여행일기인 <산중일기(山中日記)>에 적고 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1625~1707). 한평생을 살아오며 전국 방방곡곡의 산하를 구경 해보고 싶다면 그의 꿈은 그가 62세 되던 해에 실현됐다.



환성당 지안 스님 영정(양산 통도사 소장). 정시한이 지안 스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는 스물 세 살이지만 용모와 행동거지가 출중한데 문장에도 능하니 앞날에 얼마나 발전할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평을 <산중일기>에 남겼다.

3년에 걸친 그의 유람은 총 4차례 걸쳐 이뤄졌다. 1차 (1686년 3월13일~1687년 1월23일)는 속리산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2차 (1687년 3월8~17일)는 원주 지악산 일대. 3차 (1687년 8월2일~10월20일)는 금강산과 오대산, 관동팔경 등. 4차 (1688년 4월10일~9월9일)는 속리산 팔공산 명산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 불국사 통도사 등을 유람했다.

정시한의 이런 기나긴 여정과 감상을 일기 형식으로 묶은 것이 바로 <산중일기>이다. 이 책은 원래 한문일기로서 쓰여진 것을 불교미술사학자 신대현 박사(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가 번역한 것. 역사 역시 전국 8백여 사찰을 답사한 경력에 있는 베테랑 전문 답사가라 사찰의 역사와 현재 사찰 상황을 자세히 주석으로 담아 놓아 이해가 훨씬 쉽다.

한바야 등 젊은 여행자들이 붓물처럼 쏟아지는 지금의 현실로 볼 때 지은이의 여행경로는 60대 노인의 여정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길고 넓다. 순수 여행 기간만 570일이며 여정은 6,000여 리에 달한다. 답사 지역도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한반도 남부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다. 평지를 다닐 때는 노새나 말을 이용 했고, 험한 산중 사찰을 다닐 때는 전적으로 도보에 의지했다. 3백년 전 당시의 도로 상황으로 볼 때 여정이 고되고 힘들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책 곳곳에는 ‘은 힘을 다해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또한 3백여 사찰을 답사한 지은이는 이 책에 노정에서 만났던 스님들의 법명뿐 아니라 성격과 만난 감회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아 불자들이라면

자못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범주사 대암암에서 월담설계 스님과 그 제자 환성지안 스님을 만났을 때의 소감은 이 책에서 꼭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 두 스님은 17~18세기 우리 불교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이었는데 지은이와 이들의 만남은 기이 역사적 만남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안 스님에 대해 지은이는 “나이는 스물 세 살이지만 용모와 행동거지가 출중한다. 문장에도 능하니 앞날에 얼마나 발전할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평을 남겼다. 지은이의 해인이 튀어나서일까, 지안 스님은 정시한의 예언대로 훗날 화엄사상과 선(禪)을 계승하는 ‘환성파’라는 문중을 만들 정도로 조선 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승이 되었다.

해인사를 돌아보며 팔만대장경의 경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며 쓴 일기도 들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리하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선비나 승려나 세속의 남녀 할 것 없이 하루에 수백명이 관람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은 마음대로 경관을 깨트리고 아무곳이나 놓아두거나, 혹은 경관을 손상시키기도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함께 현재 사찰 사진들이 수록돼 있어 여를 휴가철 사찰 답사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밥을 먹었다’ ‘세수를 했다’ 등과 같이 일상 생활의 모습이 일기체 형식으로 책 군데군데 자주 반복돼 읽는 재미를 다소 반감시키는 것이 옥에 티일 것 같다.

“판전(版殿)은 무릇 60칸이나 되며 경관은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게 쌓아올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리하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선비나 승려나 세속의 남녀 할 것 없이 하루에 수백명이 관람하는데, 이 사람들이 혹은 마음대로 경관을 깨트리고 아무곳이나 놓아두거나, 혹은 경관을 손상시키기도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중기 60대 성리학자, 우리 산하 570일간 유람

여행길에 만난 스님들의 법명·성격·감회 꼼꼼히 묘사

석굴암 둘러본 느낌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기록정신 빛나는 일기...답사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없어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생각발전소 -철학자에게 배우는 논리의 모든 것 엔스 쾨트겐 지음 | 도복선 옮김 북로드 펴냄 | 1만3천원

글쓰기와 논리적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시대, 철학은 꼭 갖춰야 할 기본이다.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의 지식센터 소장자인 독일의 대표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퐁’의 고정 필자인 지은이가 청소년들에게 철학적 사유가 얼마나 현실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주려 위해 집필한 책이다.

논증의 기초 지식 스무 가지를 철학사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함께 소개하여 논술, 토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 책에 등장한 예들은 다른 철학서들과 달리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이들테면 부부싸움 중에 오고 가는 언쟁이나 유명 과학자들 사이의 기 싸움, 영화감독의 제작 노트, 신문기사, 정치인들의 현란한 말장난 등, 친근하고 생생한 예들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논리와 한바탕 놀아볼까요

지은이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생각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기술은 정리된 생각들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곳이라면 철학적 논쟁이든 정치적 논쟁이든 휴가를 둘러싼 승강이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규칙을 어기지 말며, 보고 또 보고, 남의 말을 비틀고(패러디) 증거를 제시하며(본보기) 무슨 뜻인지를 밝히는(정의) 모든 논리적인 방법들이 소개된다.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허버타스에 이르는 정쟁한 철학자들은 한껏 무게 잡는 형이상학적 담론에서 내려와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독자와 함께 고민에 빠진다.

기술에 따라 ‘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보자. 두 명의 수도사가 기도하고 있었다.

A 수도사가 “난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았다”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걸 본 B 수도사는 수도원장에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물었다가 크게 혼났다. 알고 보니 A 수도사는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던 것이다.

‘논리적 키우기’는 좀더 눈높이를 낮춘 어린이 지도서다. 퀴즈와 동화를 통해 토론과 논술의 능력을 하나씩 늘려가는 학습이다. 수영 캠프인이 되고 싶어하는 소년 로비는 ‘엄격한 훈련 방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평범하게 자랄 것인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빠진다. 이 선택은 ‘삶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과 명예인가? 아니면 자유와 즐거움인가?’라는 철학적 고민과 직결되는 것이다.

혹시 자녀중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본 부모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그렇지 않고 비논리와 자가당착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한다면 아이들과의 토론에서 번번이 무시당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다.

최원형(강원대 철학과 박사과정)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9월 11일 출발(모집중)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탑 포함)

왕자 스타드에서 깨달은 차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고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랄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 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붙든(佛恩)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지역 운영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아로하: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향적당: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장: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리길 342-8
■ 홈페이지: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